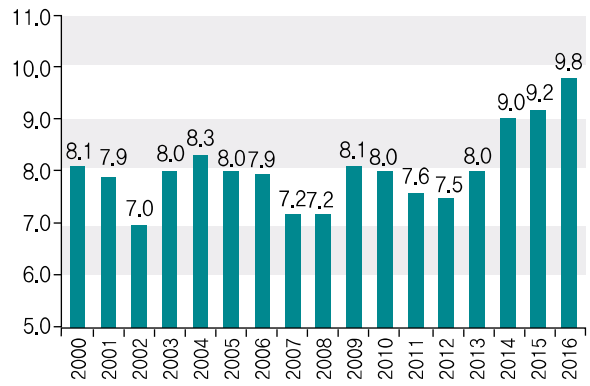


1. 서론

- 2016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하며 연간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치를 갱신
 - 통계청은 2017년 1월 발표를 통해 2016년 청년 실업률이 9.8%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언급
 - 2017년 들어서도 월별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7년 2월에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
 - 2017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 2017년 3월과 4월에도 각각 11.3%와 11.2%를 기록하면서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음
 -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청년 실업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임
 - 올해의 경우 우리나라는 스페인, 그리스 등 고질적인 청년실업국가와 같이 청년실업률 두 자리 수 클럽에 가입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임
 - 뿐만 아니라 연간 최고치라는 2016년 공식 청년 실업률 9.8%도 통계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실제 청년실업률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
 - 공식적인 실업률은 산정 시 구직 포기자 제외, 취업준비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능자 제외, 1주일에 적어도 1시간 일한 경우 취업자로 간주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 청년실업률은 공식적인 실업률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

〈그림 1〉 우리나라의 연도별 청년실업률



자료: 통계청

-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일부 기업에서는 오히려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 및 생산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족 인원은 283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4천명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족인원을 직종별로 부족인원 순으로 구분해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36천명), 운전 및 운송 관련 직(31천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26천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화이트칼라(white-collar) 관련 직종에서의 구인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3.6%),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7.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직자의 직종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필요한 교육 부족, 근로조건에서 구직자와 사업체간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실업이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들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향후 대졸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학교알리미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2014년 78.3%, 2015년 78.5%, 2016년 77.5%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청년실업자의 상당부분이 대졸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실제 청년실업의 상당부분이 대졸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함

-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환경,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노동개혁의 정체 등으로 가시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친화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는 반면 이와 함께 교육기관과 대졸 청년층에서도 효율적인 취업전략을 수립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졸 청년 취업/미취업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경제사회적 요인과 성취요인 뿐만 아니라 취업정책 등이 대졸자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심화될 수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2. 대졸 청년취업에 관한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대졸 청년취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는데 주요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오세규(2003)는 제3차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대졸자의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음

-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청년층 부가 조사가 시행된 한 개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횡단면 분석을 시행하였음

-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생보다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점에 대한 데이터 부재로 학점이 대학교 졸업 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였음

- 정태영 & 이기엽(2005)은 학점이 졸업 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음

- 정태영 & 이기엽(2005)은 특정 대학교의 학부 졸업생(2월, 8월 졸업생)의 학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학생의 학점이 졸업 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학점은 대졸자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기업 취업확률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도 취업확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기업 취업확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공계 출신의 학생들도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취업확률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음

- 최일수 & 신은중(2016)은 천안 소재 K대학의 학사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 및 대학에서의 취업 프로그램이 졸업 후 취업성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학점, 성별, 어학성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취업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대기업 취업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취업성공에 중요한 스펙으로 여겨지고 있는 어학연수의 경우 취업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최일수 & 신은중(2016)은 학사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증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특정 계열(공학 및 산업경영 계열)로 이루어진 대학 하나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로는 대졸자들의 전공에 따른 노동시장성과 결정요인이나 대졸자들의 관찮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 성공요인 등을 분석한 사례가 있음
- 김강호(2016)는 횡단면자료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가패널자료로 변환하여 대졸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성적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 성과지표로는 취업여부,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등을 사용하였는데 취업여부의 경우 인문계열에 비해 사회, 공학, 의학계열 전공자의 취업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은 인문계열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박가열 & 천영민(2016)은 관찮은 일자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졸자의 관찮은 일자리 취업요인을 분석하였음
 - * 2013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학점이 높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인문계열에 비해 사회, 교육, 공학, 자연계열일수록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외국의 문헌으로는 Carr, Wright, and Brody (1996)가 재학 중 일경험이 청년들의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음
- 분석결과 재학 중 일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Carr, Wright, and Brody(1996)의 보고서는 일경험이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것으로서 고등학교에서의 일경험을 대상으로 이것이 청년기 이후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가장 최근 2년의 자료를 결합·사용하여 대졸자 청년 취업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진로/취업 교육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 기존의 연구는 특정 한 대학의 학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한국노동패널의 경우도 청년층에 대한 자료는 부가조사를 통하여 특정 연도만을 대상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의 청년실업 및 취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반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전년도 대졸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년 취업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정 한 대학의 학사 데이터와는 달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전국의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취업여부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 대학생활, 취업준비 등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대졸자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물론 과거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사용하여 대졸자의 취업에 관해 연구한 사례가 없지 않으나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대졸 청년층에 한정하여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짐
 - * 취업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다른 노동시장성적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으며 청년

- 층(15~29세)에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음
- * 본 연구에서는 2017년 3월에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대졸 청년층의 취업 문제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함
 -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1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취업요인을 살펴보고 연도마다 다른 특수성도 함께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최근 2개년도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결합하여 분석에 이용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경제사회적 요인, 학업 성취 요인, 직업 준비 노력에 관련된 변수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서 진로/취업 교육의 중요성, 현재 주요 진로/취업 지원제도의 효과성 등과 관련한 변수들도 포함하여 대졸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진로/취업 교육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¹⁾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진로 및 취업 관련 교육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및 취업 교육 강화가 대졸자의 청년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교 전공 선택 시 진로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업 확률이 실제로 더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 요컨대 고등학교에서 진로 및 취업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 시 자신의 향후 진로 및 취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면 대학교 졸업 후 취업확률이 더 증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함
 - 뿐만 아니라 대학교 수준에서 진로·취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 교과

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의 변수도 분석에 함께 포함시켜 관련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을 수강 혹은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실제로 졸업 후 취업 가능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함

3. 대졸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1) 데이터 및 변수

- 본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취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사용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대학졸업자의 전공, 학업성취도,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경험 여부, 현재 일자리 특성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대졸자들의 교육적 경험, 경제사회적 요인, 개인적 특성 등이 취업/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과거 2005년 및 2007~2010년 졸업생에 한하여 졸업 후 3년간 추적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2011년 이후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1회 조사로 종료되는 횡단면 조사로 전환되었음
-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14년 대졸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2015년 자료임²⁾
-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대졸자 청년실업 문제, 취업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성 등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과 2015년(조사년 기준) 자료를 사용하여 대졸 청년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최신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는 2015년에 조사된 횡단면 자

1) 조사년도 기준 2015년 자료

2) 2017년 3월 업데이트 되었음

료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서도 청년 취업/미취업 요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임

- 하지만 횡단면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 많은 샘플을 확보하고 조사시점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며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조사자료와 그 전년도 자료인 2014년 조사자료 모두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기로 함

* 조사년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2014년 자료와 2015년 자료는 모두 횡단면 자료이므로 두 자료를 통합(pooling)하여 함께 분석하되 조사시기의 연도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사시기의 연도 더미변수를 생성·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

□ 대졸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는 취업과 미취업의 이항변수를 사용하였음

○ 취업과 미취업의 구분 시 미취업의 정의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통계청 정의를 확대하여 사용하였음

- 현재 통계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실제적인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취업과 미취업의 기준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설문조사의 응답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변수화하여 종속변수를 생성하고 분석을 수행함³⁾

- 통계청 기준으로는 1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항목에 대하여 일

하였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취업자로 간주하였음

- 또한 미취업자의 경우도 현재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실업자의 정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구직활동,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 취업준비, 쉬었음, 기타 등으로 응답한 경우를 미취업자로 간주하여 사용하였음(다만 이 가운데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취업과 미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변수들을 고려하였음

○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졸자들의 취업성과는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학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고용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따라 취업성과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의 성별변수를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분석모형에 포함

- 연령: 연령도 대졸자의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준비가 증가하여 취업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특정 연령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음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의 연령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실업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30세 미만의 대졸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혼인 여부: 결혼이 임금수준이나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결혼이 취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혼 여부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

3) 본 연구에서 취업과 미취업의 구분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개인설문 응답에 근거함. 요컨대 본인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로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하였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현재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자로 구분하였음. 아르바이트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요한 일자리로 생각하여 지난 1주간 일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취업자로 분류되었으며 만약 응답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 등을 주로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미취업자로 분류됨.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일하였음, 혹은 일자리 있음 이외에 구직활동, 육아, 가사,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쉬었음, 기타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먼저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정한 응답의 경우(육아, 가사, 학교 재학 중, 군입대, 결혼 준비 등)를 제외하고는 미취업자로 구분하였음. 하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된 응답도 결국 취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상황이었을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부록에서는 취업자로 구분된 대졸 청년층 이외의 모든 경우를 미취업자로 구분(단, 학교 재학 중의 경우는 제외)하여서도 취업 및 미취업의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실증분석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취업과 미취업의 기준시점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조사시점이기 때문에 졸업 후 1년 반이 경과된 시점(2월 졸업자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 혼인 여부는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모형에 포함하여 사용
- 부모의 소득수준: 부모의 소득수준도 자녀의 취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수준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
 -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현재 부모님 월평균 소득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월평균 소득은 구간별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구간변수를 가짐⁴⁾)
- 전공계열: 전공계열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이공계열 출신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인문계 전공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
 - * 전공계열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전공계열 분류에 따라 인문, 사회과학,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의 계열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모형에 포함시킴
- 출신대학 유형, 출신대학 소재지: 출신대학 유형(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혹은 출신대학 소재지(대학이 서울에 있는지 혹은 지방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신대학의 유형과 출신대학의 소재지를 모형에 포함시켰음
 -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제공하는 출신대학의 유형정보를 사용하여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로부터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모형에 포함
 - * 출신대학의 소재지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제공하는 출신대학의 지역자료를 사용하여 서울권과 비서울권(지방권)으로 구분한 후 이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
- 출신대학 특성: 출신대학의 소재지 이외에 출신대학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출신대학의 설립주체(사립/국공립), 본교 혹은 분교 여부, 주야간 여부 등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
 - * 각 변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모형에 사용하였음
- 대졸자의 사회경제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졸자의 학업성취요인을 고려하여 모형에 포함시킴
 - 학점 평점: 대졸자의 학업성취요인 변수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학 학점 평점을 고려
 - * 기존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학점이 대졸자의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으나 최근 인사담당자들의 인터뷰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학점이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검증이 필요한 상황임
 - * 각 대학별로 학점 만점 기준은 4.0/4.3/4.5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점 만점 기준을 4.5로 산정하고 4.0 혹은 4.3 기준의 학점은 4.5 기준으로 환산하여 분석모형에 사용하였음
 - 대학원 졸업 여부: 학점 이외에 학업성취요인으로서 대학원 졸업여부도 추가적으로 고려
 - * 대학졸업 이후 추가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대학원 졸업이 현재의 취업성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여부도 변수를 생성하여 모형에 포함
 - 사회경제학적 요인, 학업성취요인 뿐만 아니라 대학 및 개인의 취업 준비 수준도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수들도 모형에 포함시킴
 - 어학연수: 최근에는 기업에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졸자의 외국어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어학연수도 취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어학연수 경험 여부를 묻는 항목을 사용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
 - 직장체험(인턴 포함): 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에서 지원하는 체계적인 일자리 체험여부도 졸업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에 이용

4)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등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음

- *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은 학생들에게 직무 및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직업탐색 및 현장실습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임
-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제공하는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 참여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더미변수를 생성 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
-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대학에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행에 도움을 주는 교과목도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형에 포함시킴
- * 진로 관련 내용이지만, 학점이 인정됨(예: 진로와 직업, 직업선택과 취업준비, 리더십과 진로개발 등)
-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참여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분석에 사용
- 기타 요인으로서의 다음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모형에 포함시켰음
 - 대학 전공 선택 시 진로 및 취업 고려 여부: 대학교 이전의 진로 및 취업교육이 대졸 취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 전공 선택 시 향후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하여 대학 전공을 선택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
 - * 대학 전공 선택 시 본인의 성적이나 부모의 권유 등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고등학교부터 향후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하여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였을 경우 향후 대졸 취업성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에 포함
 - * 실증분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의 취업교육이 아니라 중등교육(중고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대학 졸업시점: 대학 졸업시점에 따라 현재 취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시점도 변수의 하나로 고려하여 모형에 포함시켰음
 -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이전 연도의 불합기 졸업자와 그 이전 연도 가을학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졸업시점의 차이에 따른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졸업시점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조사년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기를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 횡단면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각 자료의 조사 시기에 따른 취업/미취업 결과의 특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조사년도를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함

(2)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횡단면 데이터를 결합하여 상기에서 언급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취업 및 미취업의 결정요인을 분석

-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사용

$$Y_i = \alpha + \beta_k * SoEcon_i + \theta_1 * Achieve_i + \gamma_m * Effort_i + \delta_n * Choice_i + \eta_o * Etc_i + \epsilon_i$$

(Y 는 취업과 미취업을 구분하는 범주변수, $SoEcon$ 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변수로서 성별, 연령, 혼인 여부, 부모의 소득수준, 전공계열, 대학유형, 출신대학 소재지, 출신대학 특성 등의 변수, $Achieve$ 는 학업성취 수준으로서 학점의 평점, 대학원 졸업 여부 등의 변수, $Effort$ 는 개인의 취업준비 수준으로서 어학연수, 직장체험,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등의 변수, $Choice$ 는 전공 선택 시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고려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Etc 는 기타 변수로서 대학졸업 시기와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조사년도 등의 변수를 의미하며, ϵ 는 오차항을 의미)

- 종속변수가 범주형 이항변수이므로 분석방법으로는 로짓(Logit)과 프로빗(Probit)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 통상적인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로짓(Logit)이나 프로빗(Probit)과 같은 이산형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로짓이나 프로빗 모형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유의성 및 확률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로짓과 프로빗 모형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4~2015년 통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대학졸업 후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형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기초통계량은 회귀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나타내며 실제 회귀식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사용가능한 경우에만 분석에 사용되므로 기초통계량의 관측치 수와 회귀분석에 사용된 관측치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취업/미취업 ⁵⁾	29,157	0.80	0.40	0	1
성별 ⁶⁾	29,157	0.52	0.50	0	1
연령	29,157	25.61	1.97	20.3	29.9
결혼여부 ⁷⁾	29,145	0.03	0.17	0	1
부모소득 ⁸⁾	29,065	4.15	1.71	0	8
전공 유형 ⁹⁾	29,157	3.87	1.87	1	7
대학교 유형 ¹⁰⁾	29,157	1.73	0.50	1	3
대학교 소재지 ¹¹⁾	29,157	0.20	0.40	0	1
대학교 형태 ¹²⁾	29,135	0.79	0.40	0	1
대학 캠퍼스 ¹³⁾	29,157	0.08	0.35	0	2
대학 주/야간 ¹⁴⁾	29,157	1.04	0.20	1	2
학점 평점	27,653	3.68	0.40	0	4.5
대학원 ¹⁵⁾	29,157	0.00	0.06	0	1
어학연수 ¹⁶⁾	29,157	0.11	0.31	0	1
취업 교과목 ¹⁷⁾	29,157	0.47	0.50	0	1
직장체험 ¹⁸⁾	29,157	0.23	0.42	0	1
진로/취업 고려 전공선택 ¹⁹⁾	29,156	0.28	0.45	0	1
졸업 시점(월) ²⁰⁾	29,097	2.89	2.13	2	8
자료 조사시기 ²¹⁾	29,157	2014.50	0.50	2014	2015

자료: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4, 2015)

5) 미취업=0, 취업=1

6) 여성=0, 남성=1

7) 미혼=0, 기혼=1

8)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 없음(0),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 미만(2), 200~300만원 미만(3), 300~400만원 미만(4), 400~500만원 미만(5), 500~700만원 미만(6), 700~1,000만원 미만(7), 1,000만원 이상(8) 등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음.

9) 인문=1, 사회=2, 교육=3, 공학=4, 자연=5, 의학=6, 예체능=7

10) 2~3년제=1, 4년제=2, 교육대=3

11) 서울=1, 그 외=0

12) 국공립대=0, 사립대=1

13) 본교=0, 분교=1, 캠퍼스=2

14) 주간=1, 야간=2

15) 학부졸=0, 대학원졸=1

16) 어학연수 경험이 있으면 1의 값

17) 취업 교과목 수강하였을 경우 1의 값

18)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하였을 경우 1의 값

19) 진로/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였을 경우 1의 값

20) 2월 졸업생=2, 8월 졸업생=8

21) 2014년 조사자료=2014, 2015년 조사자료=2015

- 전공 선택 시 진로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공 선택 시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취업의 오즈비 로그값이 약 0.173 증가하고 z-score의 값은 약 0.096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 이를 확률값으로 환산하면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약 2.6~2.7% 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공 선택 시 진로 및 취업전망을 고려한 학생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미리 본인의 취업 및 진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 후 취업 준비나 진로 결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 진로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선택한 전공이 취업이 잘 되는 특정 학과의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공계열 더미변수 대신에 학과 중심의 세분류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음²²⁾
 - * 요컨대 동일 학과의 학생들에서도 전공 선택 시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하여 진학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은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양의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취업의 오즈비 로그값은 약 0.113 증가하고 z-score는 약 0.06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와 같은 수치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 이를 확률값으로 환산하면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약 1.7~1.8% 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생의 직업 및 취업 경험을 증가시키고 사용자 측면에서도 취업 후 적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각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의 경우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분석결과 계수값은 오히려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의 강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외의 경제사회적 변수, 학업성취도 변수 등이 졸업 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문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학점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의 학생일 경우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어학연수 경험 여부나 대학원 졸업 여부 등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 어학연수의 경우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적이지 않은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대학원 졸업의 경우 오히려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22) 전공계열을 학과 중심의 세분류 더미변수로 구분하여 사용한 후의 실증분석한 결과는 보고서 말미의 〈부표 1-1〉을 참고

〈표 2〉 대졸 청년층 취업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 전체

변수명		로짓 (1)	로짓 (2)	프로빗 (1)	프로빗 (2)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114*** (0.0403)	0.167*** (0.0424)	0.0648*** (0.0231)	0.0953*** (0.0243)	
	연령	-0.00690 (0.0114)	-0.0133 (0.0124)	-0.00343 (0.00658)	-0.00682 (0.00710)	
혼인여부 (미혼 대비 기혼)		0.832*** (0.116)	0.834*** (0.120)	0.457*** (0.0601)	0.455*** (0.0623)	
	부모소득	0.0312*** (0.00871)	0.0271*** (0.00903)	0.0182*** (0.00502)	0.0159*** (0.00520)	
전공 (인문계열 대비 각 계열의 효과)	사회과학	0.284*** (0.0513)	0.278*** (0.0530)	0.168*** (0.0304)	0.165*** (0.0314)	
		교육	0.194*** (0.0687)	0.142** (0.0712)	0.112*** (0.0407)	0.0831** (0.0421)
	공학		0.617*** (0.0526)	0.609*** (0.0546)	0.360*** (0.0307)	0.357*** (0.0319)
		자연	0.367*** (0.0580)	0.409*** (0.0601)	0.215*** (0.0341)	0.240*** (0.0352)
	의약		1.174*** (0.0821)	1.172*** (0.0862)	0.663*** (0.0447)	0.660*** (0.0469)
		예체능	0.387*** (0.0559)	0.408*** (0.0583)	0.227*** (0.0329)	0.239*** (0.0343)
	대학 소재지 (비서울 대비 서울)		0.169*** (0.0394)	0.184*** (0.0408)	0.0980*** (0.0225)	0.108*** (0.0233)
		학점 평점		0.353*** (0.0378)		0.205*** (0.0218)
	대학원		-0.604*** (0.224)		-0.355*** (0.133)	
	어학연수		0.0330 (0.0494)		0.0192 (0.0284)	
	진로/취업 교과목			-0.0662** (0.0316)		-0.0377** (0.0181)
	직장체험			0.113*** (0.0380)		0.0640*** (0.0216)
진로/취업 고려 전공 선택			0.173*** (0.0364)		0.0963*** (0.0206)	
자료 조사년도			0.0292 (0.0304)		0.0179 (0.0174)	
상수		0.645** (0.278)	-59.50 (61.28)	0.401** (0.160)	-36.35 (35.16)	
	관측치수	29,031	27,476	29,031	27,476	

주 1. 기타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생략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값

〈표 3〉 대졸 청년층 취업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 대기업

변수명		로짓 (1)	로짓 (2)	프로빗 (1)	프로빗 (2)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370*** (0.0487)	0.476*** (0.0516)	0.228*** (0.0299)	0.291*** (0.0315)
	연령	-0.0238* (0.0139)	-0.0422*** (0.0151)	-0.0145* (0.00852)	-0.0252*** (0.00921)
혼인여부 (미혼 대비 기혼)		0.888*** (0.130)	0.853*** (0.135)	0.539*** (0.0756)	0.511*** (0.0788)
	부모소득	0.0534*** (0.0105)	0.0447*** (0.0109)	0.0328*** (0.00642)	0.0276*** (0.00665)
전공 (인문계열 대비 각 계열의 효과)	사회과학	0.312*** (0.0620)	0.335*** (0.0646)	0.194*** (0.0385)	0.206*** (0.0398)
	교육	-0.688*** (0.0974)	-0.678*** (0.101)	-0.428*** (0.0599)	-0.421*** (0.0617)
	공학	0.703*** (0.0626)	0.735*** (0.0657)	0.434*** (0.0386)	0.451*** (0.0403)
	자연	0.320*** (0.0698)	0.427*** (0.0728)	0.197*** (0.0432)	0.260*** (0.0447)
	의약	1.319*** (0.0938)	1.378*** (0.0992)	0.804*** (0.0560)	0.831*** (0.0588)
	예체능	-0.258*** (0.0744)	-0.185** (0.0779)	-0.162*** (0.0461)	-0.116** (0.0480)
대학 소재지 (비서울 대비 서울)		0.613*** (0.0465)	0.645*** (0.0484)	0.377*** (0.0282)	0.397*** (0.0292)
학점 평점			0.622*** (0.0480)		0.380*** (0.0291)
대학원			-0.682*** (0.262)		-0.417*** (0.159)
어학연수			0.240*** (0.0573)		0.145*** (0.0347)
진로/취업 교과목			-0.0139 (0.0385)		-0.00900 (0.0235)
직장체험			0.180*** (0.0457)		0.110*** (0.0277)
진로/취업 고려 전공 선택			0.183*** (0.0432)		0.111*** (0.0263)
자료 조사년도			0.0772** (0.0373)		0.0477** (0.0227)
상수		-0.322 (0.340)	-157.9** (75.06)	-0.199 (0.208)	-97.57** (45.78)
관측치수		14,040	13,420	14,040	13,420

주 1. 기타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생략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값

〈표 4〉 대졸 청년층 취업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 중소기업

변수명		로짓 (1)	로짓 (2)	프로빗 (1)	프로빗 (2)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0937**	-0.0674	-0.0576**	-0.0419
		(0.0443)	(0.0466)	(0.0266)	(0.0280)
연령		0.0199	0.0184	0.0125*	0.0117
		(0.0126)	(0.0136)	(0.00759)	(0.00818)
혼인여부 (미혼 대비 기혼)		0.839***	0.849***	0.482***	0.486***
		(0.122)	(0.126)	(0.0674)	(0.0696)
부모소득		0.0101	0.00869	0.00628	0.00536
		(0.00958)	(0.00994)	(0.00578)	(0.00600)
전공 (인문계열 대비 각 계열의 효과)	사회과학	0.248***	0.223***	0.155***	0.140***
		(0.0569)	(0.0587)	(0.0352)	(0.0363)
	교육	0.526***	0.460***	0.323***	0.283***
		(0.0730)	(0.0755)	(0.0445)	(0.0461)
	공학	0.559***	0.534***	0.344***	0.329***
		(0.0582)	(0.0604)	(0.0357)	(0.0370)
	자연	0.400***	0.407***	0.247***	0.252***
(0.0638)		(0.0659)	(0.0392)	(0.0405)	
의약	1.089***	1.053***	0.651***	0.628***	
	(0.0875)	(0.0919)	(0.0508)	(0.0533)	
예체능	0.657***	0.651***	0.400***	0.396***	
	(0.0602)	(0.0626)	(0.0367)	(0.0382)	
대학 소재지 (비서울 대비 서울)		-0.174***	-0.160***	-0.105***	-0.0957***
		(0.0437)	(0.0452)	(0.0266)	(0.0275)
학점 평점			0.211***		0.127***
			(0.0405)		(0.0245)
대학원			-0.723***		-0.443***
			(0.266)		(0.166)
어학연수			-0.112**		-0.0674**
			(0.0549)		(0.0335)
진로/취업 교과목			-0.0785**		-0.0475**
			(0.0341)		(0.0206)
직장체험			0.0812**		0.0479*
			(0.0411)		(0.0247)
진로/취업 고려 전공 선택			0.140***		0.0814***
			(0.0391)		(0.0234)
자료 조사년도			0.0338		0.0214
			(0.0327)		(0.0197)
상수		-0.284	-69.22	-0.174	-43.72
		(0.305)	(65.97)	(0.184)	(39.73)
관측치수		19,610	18,510	19,610	18,510

주 1. 기타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생략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값

□ 미취업자 대비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미취업자 대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²³⁾ 상기에서 언급한 결정요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진로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직장체험 프로그램 분석결과에서도 미취업자 대비 대기업 취업자나 중소기업 취업자 모두에서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수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모두 유의적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만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대기업 취업에 미치는 효과의 약 44~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취업에 있어서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은 대기업 취업이나 중소기업 취업 어느 경우에도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학연수와 성별 등은 대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 취업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어학연수는 대기업 취업에는 매우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결과), 중소기업 취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취업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 취업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4.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 공급자 측면에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음

○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악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자 측면에서 취업기회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년실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졸 청년들의 취업 결정요인을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발견한 사실들은 전공 선택 시 장래의 진로 및 취업을 사전적으로 고려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다는 것임

○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취업의 오즈비 로 그값이 약 0.173 증가하고 z-score의 값은 약 0.096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결과

○ 이를 확률값으로 환산하면 진로 및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약 2.6~2.7% 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한 경우에서도 전공 선택 시 진로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3) 대기업은 종사자수 300명 이상 기업을,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300인 미만 기업을 의미

□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취업의 오즈비 로그값은 약 0.113 증가하고 z-score는 약 0.06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이를 확률값으로 환산하면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약 1.7~1.8% 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한 경우에서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대기업 취업에 미치는 효과의 약 44~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각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의 경우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증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실증분석 결과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진로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선택한 전공이 취업이 잘 되는 특정 학과의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공계열 대신 학과 중심의 세분류 더미변수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음²⁴⁾

○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분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취업자 외의 대졸자를 미취업자로 구분하여서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상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²⁵⁾

(2) 정책적 시사점

□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졸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 및 취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분석결과 전공 선택 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 경우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학 입학 시 본인의 진로 및 취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서도 진로 및 취업교육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²⁶⁾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시 전공 선택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진로 및 취업교육 관련 항목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진로 및 취업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학년별 진로상담, 전공 관련 직업 정보 제공, 진로 관련 체험활동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7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제4차 산업혁명 등 급속도로 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고등학교에서 진로 및 취

24) 전공계열 대신 학과 중심의 세분류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표는 보고서 말미의 <부표 1>을 참고

25)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분을 확대하여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표는 보고서 말미의 <부표 2>를 참고

26) 조사년도 기준 2015년 자료

- 업 트렌드의 변화를 신속하게 소개하는 등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진로 및 취업교육의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고, 교과과정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 및 취업교육을 항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진로 및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2016년 12월에 발표된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의 채택 비율은 중학교 76.6%, 고등학교 46.8%인 것으로 나타나 모든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에 관한 교육을 정규 수업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양적인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문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진로 및 취업 교육을 담당할 교사 혹은 전문가 육성 등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교육부에서는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진로 및 취업교육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 학생들이 실제로 원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진로 및 취업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 대학 졸업 후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분석결과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설문조사 결과²⁷⁾ 직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혜택 혹은 임금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확대하여 기업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²⁸⁾
 -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히 중소기업 관련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이 중소기업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점이나 월급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업의사를 제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실증분석 결과 대학교의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은 대졸 청년층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 및 교과내용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진로 설계 및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개설

27) 조사년도 기준 2015년 자료

28)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직장체험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 종류도 다양하고 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다른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각 프로그램마다 참여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상이한 실정.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통합 관리·운영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

- 하지만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중될 경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교과목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직무의 이해 등과 같이 이론과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의 효과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에 부응하여 산학연계 및 현장중심으로 교과과정을 다양화하는 등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을 대폭 개선할 필요
 - 저학년들의 수강과목에서는 교과목의 소개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강의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고학년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관심 분야를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취업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교과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우수 진로 및 취업 교과목의 사례선정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진로 및 취업 교과목 프로그램의 홍보·공유방안도 모색할 필요

〈참고문헌〉

- 김강호(2016), “GOMS 가패널자료를 활용한 대졸자의 노동시장진입 특성,”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박가열·천영민(2016), “대졸자 괜찮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분석,”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 오세규(2003),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 분석,” 2003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정태영·이기엽(2006),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학점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Vol. 8, No. 2.
- 최일수·신은중(2016), “대학 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대학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Vol. 23, No. 1.
- 한국고용정보원(201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조사년도 기준 2014년, 2015년).
- Carr, R. V., Wright, J. D., and Brody, C. J. (1996), “Effect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

〈부록〉

〈부표 1-1〉 세부학과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 전체

		로짓 (1)	로짓 (2)	프로빗 (1)	프로빗 (2)	
변수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160***	0.223***	0.0907***	0.128***	
		(0.0423)	(0.0445)	(0.0243)	(0.0256)	
연령		-0.00796	-0.0151	-0.00410	-0.00794	
		(0.0120)	(0.0130)	(0.00691)	(0.00744)	
혼인여부 (미혼 대비 기혼)		0.789***	0.788***	0.429***	0.424***	
		(0.117)	(0.121)	(0.0609)	(0.0632)	
부모소득		0.0277***	0.0235**	0.0162***	0.0139***	
		(0.00887)	(0.00921)	(0.00511)	(0.00530)	
세부학과기준 (206개 - 학과 1 대비 다른 학과의 효과)	학과 2	0.00265	-0.283	-0.00128	-0.177	
		(0.301)	(0.318)	(0.184)	(0.195)	
	학과 3	0.601**	0.550*	0.360**	0.330*	
		(0.296)	(0.305)	(0.177)	(0.182)	
	학과 4	1.586***	1.261**	0.905***	0.744**	
		(0.562)	(0.573)	(0.298)	(0.317)	
					
	학과 203	0.897**	0.836**	0.528**	0.495**	
		(0.397)	(0.403)	(0.228)	(0.233)	
	학과 204	1.197***	1.301***	0.682***	0.744***	
		(0.427)	(0.453)	(0.237)	(0.250)	
	학과 205	1.311***	1.240***	0.750***	0.710***	
(0.364)		(0.381)	(0.202)	(0.212)		
대학 소재지 (비서울 대비 서울)	0.195***	0.215***	0.112***	0.125***		
	(0.0417)	(0.0432)	(0.0239)	(0.0247)		
학점 평점			0.371***	0.219***		
			(0.0384)	(0.0222)		
대학원			-0.659***	-0.382***		
			(0.229)	(0.136)		
여학연수			0.0179	0.00999		
			(0.0510)	(0.0292)		
진로/취업 교과목			-0.0651**	-0.0373**		
			(0.0321)	(0.0184)		
직장체험			0.101***	0.0582***		
			(0.0387)	(0.0220)		
진로/취업 고려 전공 선택			0.149***	0.0816***		
			(0.0371)	(0.0210)		
자료 조사년도			0.0271	0.0159		
			(0.0309)	(0.0177)		
상수		0.418	-55.49	0.262	-32.58	
		(0.340)	(62.27)	(0.199)	(35.74)	
관측치수		28,928	27,380	28,928	27,380	

주 1. 기타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생략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값

〈부표 1-2〉 세부학과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 대기업

		로짓 (1)	로짓 (2)	프로빗 (1)	프로빗 (2)	
변수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372***	0.490***	0.226***	0.297***	
		(0.0518)	(0.0548)	(0.0316)	(0.0332)	
연령		-0.0193	-0.0366**	-0.0111	-0.0211**	
		(0.0148)	(0.0160)	(0.00900)	(0.00971)	
혼인여부 (미혼 대비 기혼)		0.903***	0.869***	0.539***	0.511***	
		(0.134)	(0.139)	(0.0777)	(0.0807)	
부모소득		0.0496***	0.0429***	0.0303***	0.0264***	
		(0.0109)	(0.0113)	(0.00660)	(0.00684)	
세부학과기준 (206개 - 학과 1 대비 다른 학과의 효과)	학과 2	0.456	0.0904	0.279	0.0672	
		(0.402)	(0.434)	(0.245)	(0.260)	
	학과 3	1.363***	1.333***	0.839***	0.814***	
		(0.381)	(0.394)	(0.232)	(0.238)	
	학과 4	2.741***	2.388***	1.648***	1.462***	
		(0.608)	(0.628)	(0.339)	(0.363)	

	학과 203	0.704	0.743	0.430	0.446	
		(0.531)	(0.537)	(0.326)	(0.330)	
	학과 204	0.945*	1.207**	0.571*	0.728**	
	(0.557)	(0.581)	(0.340)	(0.355)		
학과 205	-0.378	-0.328	-0.236	-0.211		
	(0.645)	(0.658)	(0.383)	(0.394)		
대학 소재지 (비서울 대비 서울)		0.592***	0.621***	0.359***	0.378***	
		(0.0501)	(0.0521)	(0.0302)	(0.0313)	
학점 평점			0.640***		0.389***	
			(0.0499)		(0.0299)	
대학원			-0.774***		-0.462***	
			(0.271)		(0.163)	
어학연수			0.180***		0.108***	
			(0.0598)		(0.0360)	
진로/취업 교과목			-0.000798		-0.00184	
			(0.0398)		(0.0241)	
직장체험			0.174***		0.107***	
			(0.0473)		(0.0285)	
진로/취업 고려 전공 선택			0.127***		0.0746***	
			(0.0452)		(0.0273)	
자료 조사년도			0.0620		0.0385*	
			(0.0386)		(0.0234)	
상수		-0.990**	-128.1*	-0.622**	-79.41*	
		(0.446)	(77.68)	(0.270)	(47.05)	
관측치수		14,004	13,388	14,004	13,388	

주 1. 기타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생략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값

〈부표 1-3〉 세부학과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 중소기업

		로짓 (1)	로짓 (2)	프로빗 (1)	프로빗 (2)	
변수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0422	-0.00195	-0.0273	-0.00298	
		(0.0470)	(0.0494)	(0.0282)	(0.0297)	
연령		0.0221*	0.0176	0.0137*	0.0111	
		(0.0134)	(0.0144)	(0.00800)	(0.00860)	
혼인여부 (미혼 대비 기혼)		0.759***	0.769***	0.431***	0.432***	
		(0.124)	(0.128)	(0.0686)	(0.0709)	
부모소득		0.00897	0.00609	0.00551	0.00370	
		(0.00980)	(0.0102)	(0.00589)	(0.00612)	
세부학과기준 (206개 - 학과 1 대비 다른 학과의 효과)	학과 2	-0.421	-0.670*	-0.264	-0.417*	
		(0.348)	(0.371)	(0.218)	(0.231)	
	학과 3	0.218	0.186	0.134	0.115	
		(0.332)	(0.342)	(0.206)	(0.212)	
	학과 4	0.610	0.390	0.371	0.242	
		(0.625)	(0.648)	(0.376)	(0.398)	

	학과 203	0.883**	0.792*	0.538**	0.486*	
		(0.416)	(0.424)	(0.247)	(0.254)	
	학과 204	1.250***	1.315***	0.735***	0.777***	
	(0.439)	(0.465)	(0.251)	(0.265)		
학과 205	1.474***	1.400***	0.861***	0.818***		
	(0.373)	(0.390)	(0.211)	(0.221)		
대학 소재지 (비서울 대비 서울)		-0.133***	-0.109**	-0.0806***	-0.0660**	
		(0.0466)	(0.0483)	(0.0282)	(0.0292)	
학점 평점			0.234***		0.143***	
			(0.0416)		(0.0250)	
대학원			-0.694**		-0.424**	
			(0.272)		(0.169)	
어학연수			-0.0952*		-0.0571*	
			(0.0570)		(0.0346)	
진로/취업 교과목			-0.0835**		-0.0505**	
			(0.0348)		(0.0209)	
직장체험			0.0591		0.0362	
			(0.0421)		(0.0252)	
진로/취업 고려 전공 선택			0.136***		0.0781***	
			(0.0402)		(0.0240)	
자료 조사년도			0.0384		0.0228	
			(0.0335)		(0.0201)	
상수		-0.410	-78.54	-0.246	-46.70	
		(0.370)	(67.50)	(0.225)	(40.54)	
관측치수		19,539	18,444	19,539	18,444	

주 1. 기타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생략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값

〈부표 2-1〉 미취업자 대상 확대 후 실증분석 결과 - 전체

		로짓 (1)	로짓 (2)	프로빗 (1)	프로빗 (2)
변수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158***	0.208***	0.0900***	0.119***
		(0.0382)	(0.0402)	(0.0222)	(0.0233)
연령		-0.00255	-0.00889	-0.00114	-0.00452
		(0.0108)	(0.0117)	(0.00630)	(0.00679)
혼인여부 (미혼 대비 기혼)		-0.0995	-0.0932	-0.0510	-0.0486
		(0.0764)	(0.0794)	(0.0451)	(0.0468)
부모소득		0.0236***	0.0189**	0.0138***	0.0112**
		(0.00829)	(0.00860)	(0.00483)	(0.00501)
전공 (인문계열 대비 각 계열의 효과)	사회과학	0.293***	0.282***	0.175***	0.170***
		(0.0492)	(0.0509)	(0.0295)	(0.0304)
	교육	0.192***	0.144**	0.114***	0.0857**
		(0.0657)	(0.0681)	(0.0394)	(0.0408)
	공학	0.617***	0.604***	0.364***	0.357***
		(0.0504)	(0.0524)	(0.0298)	(0.0309)
	자연	0.345***	0.383***	0.206***	0.228***
	(0.0554)	(0.0573)	(0.0329)	(0.0340)	
의약		1.068***	1.069***	0.614***	0.612***
		(0.0759)	(0.0799)	(0.0423)	(0.0445)
예체능		0.349***	0.375***	0.209***	0.223***
		(0.0532)	(0.0556)	(0.0317)	(0.0331)
대학 소재지 (비서울 대비 서울)		0.144***	0.157***	0.0852***	0.0941***
		(0.0374)	(0.0387)	(0.0217)	(0.0224)
학점 평점			0.337***		0.198***
			(0.0361)		(0.0211)
대학원			-0.675***		-0.400***
			(0.210)		(0.127)
여학연수			0.0380		0.0214
			(0.0471)		(0.0274)
진로/취업 교과목			-0.0430		-0.0249
			(0.0302)		(0.0175)
직장체험			0.0961***		0.0560***
			(0.0362)		(0.0209)
진로/취업 고려 전공 선택			0.177***		0.101***
			(0.0347)		(0.0199)
자료 조사년도			0.0322		0.0195
			(0.0290)		(0.0168)
상수		0.452*	-65.57	0.289*	-39.78
		(0.263)	(58.44)	(0.153)	(33.94)
관측치수		29,778	28,185	29,778	28,185

주 1. 기타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생략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값

〈부표 2-2〉 미취업자 대상 확대 후 실증분석 결과 - 대기업

		로짓 (1)	로짓 (2)	프로빗 (1)	프로빗 (2)
변수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412***	0.512***	0.254***	0.314***
		(0.0468)	(0.0494)	(0.0288)	(0.0303)
연령		-0.0194	-0.0375***	-0.0122	-0.0229***
		(0.0133)	(0.0144)	(0.00819)	(0.00884)
혼인여부 (미혼 대비 기혼)		0.0307	0.00303	0.0207	0.00139
		(0.0939)	(0.0987)	(0.0585)	(0.0610)
부모소득		0.0445***	0.0356***	0.0273***	0.0220***
		(0.0101)	(0.0105)	(0.00622)	(0.00644)
전공 (인문계열 대비 각 계열의 효과)	사회과학	0.315***	0.332***	0.196***	0.205***
		(0.0601)	(0.0626)	(0.0374)	(0.0387)
	교육	-0.685***	-0.668***	-0.426***	-0.416***
		(0.0950)	(0.0980)	(0.0583)	(0.0601)
	공학	0.701***	0.726***	0.434***	0.447***
		(0.0606)	(0.0636)	(0.0375)	(0.0391)
	자연	0.297***	0.395***	0.183***	0.242***
	(0.0675)	(0.0703)	(0.0419)	(0.0434)	
의약		1.210***	1.269***	0.742***	0.770***
		(0.0883)	(0.0936)	(0.0533)	(0.0561)
예체능		-0.301***	-0.222***	-0.187***	-0.138***
		(0.0721)	(0.0755)	(0.0446)	(0.0465)
대학 소재지 (비서울 대비 서울)		0.582***	0.612***	0.360***	0.378***
		(0.0447)	(0.0464)	(0.0273)	(0.0283)
학점 평점			0.599***		0.366***
			(0.0464)		(0.0281)
대학원			-0.736***		-0.450***
			(0.251)		(0.152)
어학연수			0.240***		0.146***
			(0.0550)		(0.0335)
진로/취업 교과목			0.0132		0.00768
			(0.0372)		(0.0228)
직장체험			0.156***		0.0960***
			(0.0439)		(0.0268)
진로/취업 고려 전공 선택			0.197***		0.120***
			(0.0417)		(0.0255)
자료 조사년도			0.0758**		0.0468**
			(0.0360)		(0.0220)
상수		-0.513	-155.2**	-0.308	-95.84**
		(0.325)	(72.46)	(0.200)	(44.37)
관측치수		14,724	14,068	14,724	14,068

주 1. 기타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생략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값

〈부표 2-3〉 미취업자 대상 확대 후 실증분석 결과 - 중소기업

		로짓 (1)	로짓 (2)	프로빗 (1)	프로빗 (2)
변수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취업/미취업
성별 (여성 대비 남성)		-0.0443	-0.0214	-0.0296	-0.0160
		(0.0422)	(0.0443)	(0.0256)	(0.0269)
연령		0.0235*	0.0225*	0.0148**	0.0142*
		(0.0120)	(0.0129)	(0.00726)	(0.00781)
혼인여부 (미혼 대비 기혼)		-0.128	-0.113	-0.0791	-0.0705
		(0.0834)	(0.0864)	(0.0510)	(0.0528)
부모소득		0.00349	0.00125	0.00217	0.000756
		(0.00916)	(0.00951)	(0.00557)	(0.00579)
전공 (인문계열 대비 각 계열의 효과)	사회과학	0.258***	0.228***	0.161***	0.143***
		(0.0550)	(0.0567)	(0.0342)	(0.0352)
	교육	0.527***	0.463***	0.326***	0.288***
		(0.0702)	(0.0726)	(0.0431)	(0.0446)
	공학	0.559***	0.529***	0.346***	0.328***
		(0.0562)	(0.0583)	(0.0347)	(0.0359)
	자연	0.386***	0.389***	0.240***	0.242***
	(0.0614)	(0.0634)	(0.0380)	(0.0392)	
의약		0.991***	0.958***	0.600***	0.579***
		(0.0816)	(0.0859)	(0.0483)	(0.0508)
예체능		0.623***	0.621***	0.383***	0.381***
		(0.0576)	(0.0600)	(0.0355)	(0.0369)
대학 소재지 (비서울 대비 서울)		-0.190***	-0.180***	-0.116***	-0.109***
		(0.0418)	(0.0432)	(0.0256)	(0.0265)
학점 평점			0.199***		0.121***
			(0.0389)		(0.0237)
대학원			-0.768***		-0.474***
			(0.255)		(0.159)
여학연수			-0.106**		-0.0656**
			(0.0527)		(0.0324)
진로/취업 교과목			-0.0573*		-0.0353*
			(0.0327)		(0.0199)
직장체험			0.0663*		0.0404*
			(0.0393)		(0.0238)
진로/취업 고려 전공 선택			0.144***		0.0855***
			(0.0375)		(0.0226)
자료 조사년도			0.0391		0.0242
			(0.0314)		(0.0191)
상수		-0.452	-79.89	-0.280	-49.57
		(0.290)	(63.26)	(0.176)	(38.43)
관측치수		20,339	19,201	20,339	19,201

주 1. 기타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생략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값